

경제위기 대응 중앙정부 시스템 한계 조례 제정 광주시 주도 대응체계 필요

광주연구원 제도개선 보고서

조사·연구·매뉴얼 체계적 작성

위기 확산 선제적 대응 나서야

미국 트럼프 관세전쟁 등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경제 위기 대응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의 지역경제 동향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연구 확대 및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역의 경제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광주연구원(연구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정책포커스, 지역 경제위기 대응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광주시 주도의 '지역 경제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관세 패권전쟁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광주시가 주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산업위기특별법'을 통해 산업 중심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지자체는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경제위기 대응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여전히 정부와 같은 산업중심의 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 전북, 충남, 서울, 경기 등은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 외 다방면에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반면 광주시는 정부와 비슷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조례' 신설을 통해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위기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신속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광주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주연구원의 공공투자경제분석센터도 지역 경제 현황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광주시 거버넌스 구성 및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위기대응 관련 거버넌스는 위기관리위원회와 위기대응위원회로 세분화하고, 모니터링 부문도 따로 구성함으로써 지역 경기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지역 내·외 다양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식음료 팝업스토어 잇단 흥행

가정의 달 맞아 건강식품 오픈

광주신세계는 "광주신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F&B(식음료) 팝업스토어가 잇따라 흥행하면서 앵콜팝업 및 정식매장 입점으로 이어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고객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다양한 F&B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오는 8일까지 분관 지하 1층에서는 '김복란'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김복란은 김치볶음밥과 다양한 토핑들을 함께 튀긴 주먹밥으로, 팝업 매장에서는 콘 치즈, 매운 참치, 모짜렐라, 참치마요 등 8가지 종류를 만나볼 수 있다.

〈사진〉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적합한 건강식품 팝업도 연다. 프리미엄 건강브랜드 '경육채'는 국내외의 좋은 원재료를 엄선하고, 그 외 단 1%의 첨가물도 섞지 않은 고품질 건강식품들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으로는 '경육채 쌍화 30', '더 경육 오리진 600', '더 경육 플러스 600', '더 경육 골드 600' 등이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나눠 먹기 좋은 디저트 MD 팝업들도 준비했다. 1일까지 수제 디저트 브랜드 '블루 포인트', 베이커리 브랜드 '쿠기앤모어', 미국식 핫도그 브랜드 'WAGDOG' 팝업이 진행했다.

또 2일부터는 여수에서 온 과일 모찌 브랜드 '서녹씨' 팝업 매장이 마련된다. 대표상품으로 '중합 과일모찌', '딸기 모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에서 한 차례 팝업을 진행했던 브랜드 중 고객들의 인기에 힘입어 정식 매장으로 입점된 브랜드도 있다. 대표적으로 '버터앤셀타'는 지난해 팝업에 이어 올해도 오는 15일까지 팝업을 진행하며, 지난 2월 팝업스토어로 시작한 '구오만두'는 최근 광주신세계에 정식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광주신세계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팝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총 “정년 연장하면 노동시장 부작용…60세 유지해야”

임금 체계 개편안 마련이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

3000명에서 작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구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한국

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어린이날 맞아 해리포터 팝업스토어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 지팡이와 스카프 등 다양한 굿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8일까지 '위자드물 X 해리포터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팝업에서는 마법 지팡이인 완드 컬렉션과, 승강장 발메트, 버터스카치비어 등 해리포터 책과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점은 구매 금액대별로 사은품을 증정하고, SNS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SKT 유심 부족 해소 전엔 신규가입 받지 말라”

과기정통부, 강도 높은 행정지도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SKT가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계획 업무협의회

함평지역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8일 함평군에서 전남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촌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함평군, 함평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으며, 시범사업의 참여 주체별 역할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함평군이 현재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로, 주민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시범 사례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촌공간계획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장성 농업회사 새벽팜, LA에 김치 20t 수출

농업회사법인(주) 새벽팜이 미국 LA에 6만 달러 상당의 김치 20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새벽팜은 지난 30일 김한중 장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전직식을 열고 김치 20톤을 미국으로 보냈다.

〈사진〉

이번 수출 제품은 포기김치·매운 불김치·알타리 김치·갯김치·열무김치 등으로 미국 LA 10개의 한인마트에 입점할 예정이다.

새벽팜은 2023년 제12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미국 하와이 첫 수출을 거쳐 LA 수출까지 이뤘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에서도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성에 공장을 둔 새벽팜은 인재 양성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기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의병 새벽팜 대표는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올해 100만 달러 수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